

# 관심 못 끄는 전주교도소 이전 '답답하네'

### 지난달 3일부터 후보지 공모...유치 신청 1건도 없어

### 획기적 지원책 부재...법무부는 현위치 재건축 검토

전주시가 도심에 있는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유치 희망지를 공모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한 곳도 신청하지 않는 등 교도소 이전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모 마감시한인 오는 7월 2일까지는 50일가량 남아있지만 인센티브가 적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도소 이전 지지부진 =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후보지 자락에 대해서 부지규모가 19만8348㎡(6만평) 이상으로 가능한 전주법원,검찰청과 가까운 지역, 민원인의 접근이 편한 지역을 꼽고 있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972년에 완산구 구이로에 자리 잡을 당시, 주변이 인가에 많이 떨어져 있고, 산과 농토로 둘러싸여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되지는 않

았다.

하지만 현재는 인근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고, 수많은 주택이 들어서면서 이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전된 지 42년이 지나다 보니 교정시설이 노후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 교도소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등 문제를 들어내 전주시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가 2011년 전주시 상립동으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또 전주교도소 이전문제에 수심 차려 논의됐지만 마땅한 이전장소가 나타나지 않았고 있다.

전주시는 12일 "후보지 공모 이후 신청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으며 간간히 문의만 오는 상황"이라며 "마감 직전에 여

러 마을이 유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전지역 획기적 인센티브 등 필요 =전주교도소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가 내놓은 인센티브가 고작 30억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간접 지원 방식이어서 유치 희망 지역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30억원의 인센티브가 마을 진입로·보도 개설,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 등에만 투입되기 때문이다.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유치 희망지역 주민은 내심 직접적인 보상을 바라고 있지만 시가 내건 인센티브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주민으로서의 이 같은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지자체가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에 따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교도소 이전에 소극적인 법무부

역시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계획뿐이어서 이전 희망 지역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주시는 애초 공모 방식을 통한 이전이 전국에서 처음인데다 현재 이전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어 오히려 법무부가 많은 인센티브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면 다른 시도의 교도소들이 이전할 때마다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선례를 남기는 부담에 직면, 눈길 끝 만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년간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해 터덕거린 교도소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교도소 이전에 적극적인 전주시와 달리 법무부는 유치 희망 지역이 없으면 현 부지에 교도소를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기자 노트

### 군수의 구속으로 드러난 공직사회 비리



강철수

전주·부안 주재기자

부안군청 인사명부 조작 등의 혐의로 김호수 부안군수가 최근 법정구속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신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하고, 이모 전 행정계장에게는 징역 10월, 배모 전 인사담당자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유예했다.

이 때문에 부안 군정은 당분간 서한진 부군수가 대행하는 등 '파행 행정'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해 부안군이 투명 행정을 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수와 주요 간부들의 잇단 법정구속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도 꼼꼼히 봐야 한다. 재판부는 "친인척이나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자의 청탁을 받아 특정 공무원 서류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해 근무평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방해하고, 중요한

인사 관련 서류를 무려 6년간 자신의 집에 보관해 인사 관련 서류를 재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근무 평정제도를 퇴색시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책임을 사망한 월, 배모 전 인사담당자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유예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인사 과정에서 서열을 조작한 공무원 수가 무려 57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수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부안군은 3명의 군수가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인사비리는 그동안 대부분 변죽만 울리다가 잊혀졌던 비리사슬 구조가 엄연히 작동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다. 부안군 공직사회는 이번 사건을 관철화되고 구조화된 비리와 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knews@kwangju.co.kr



남원시 운봉읍 '국악의 성지'에서 팽과리를 배우는 외국인들

## 남원 '국악의 성지'에서 우리 소리 배우세요

### 판소리 따라하기 등 인기

"흥겨운 우리 국악 들으면서 남원의 아름다움도 만끽하세요."

남원시 운봉읍 '국악의 성지'가 남원 관광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은 우리 소리를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악 테마 여행지로써 관광객들로 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12일 남원시는 "지난해 3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국악의 성지'는 올해 4월 말까지 6000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과 10일에는 부산 백양고 학생 208여 명을 비롯해 대구 관천중학교 80여 명이 다녀갔다. 또 오는 15일에는 일본 큐슈 관광 관계자 15명이 방문할 예정이어서 일본에 우리 음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악의 성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덕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니어저 국악기 만들기 ▲판소리 한 대목 따라 배우기 ▲풍물체험 ▲유아한삼체험 ▲국악공연 관람 등 다양하다. 또 5~6월과 9~10월 매주 토요일에는 지리산 둘레길 이용자를 위한 '토요 판소리'도 운영하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 순창군, UN 캠페인 가입

순창군이 국제연합 재해경감 전략사무국(UN ISDR)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가입했다.

12일 순창군은 "이번 가입을 계기로 재해위험 감소, 재해경감 교육·훈련, 기반시설 개선, 환경·생태계 보호 등 '기후변화와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UN ISDR은 지구온난화 등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해 빈발에 따라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을 위해 유엔 사무국 내에 설립된 기구다. UN ISDR은 2010년부터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가입 3년 뒤에는 활동내용을 평가받고 결과에 따라 '방재 안전도시'로 인증받게 된다.

군은 앞으로 10년간 24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풍수에 위험지역 정비를 목표로 하천·내수재해 등 85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인다.

김민희 재난관리담당은 "국제 방재 선진도시와의 정보 교류, 재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고목제거 '구슬땀'

남원시 120 민원봉사대원들이 최근 산내면 와운마을 주택 급경사지에 위태롭게 서있는 고목을 제거하고 있다. 민원봉사대는 지난해 712회 출동해 1395기구 4229건의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제 8기 인문학강좌 수강생모집 인문학, 그 향을 말하다**

5.15 - 7.03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8주) / 동구청 앞 백재빌딩 7층 대강당

개강일시 2014년 5월 15일(목) 저녁 7시 등록비 100,000원(입사 2회 포함)  
접수문의 대동문화재단 문화사업팀 TEL. 070-4496-5510, 062-674-6567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daedongc.com](http://www.daedongc.com)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강의일정	날짜	내용	강사
1강	5.15	김성녀의 소리사랑 이야기	김성녀 배우, 국립창극단 예술 감독, 중앙대 교수
2강	5.22	Again and Again (Again 1976)	채은옥 가수 (빛물, 석별, 어느날 갑자기 등)
3강	5.29	사대부의 유배와 낙남 - 그 명과 배	조상열 사대문화재단 대표, 인문학 전문 강사
4강	6.5	문화융성시대 - 내 삶을 바꾼 문화예술	임충식 신봉문화재단 중앙회 회장, 전 중소기업청 차장
5강	6.12	화가의 정원 - 죽실현 원림	박태후 문인화가, 죽실현 대표
6강	6.19	책이란 무엇인가 - 빛의 뿌리, 글의 뿌리 그리고 책의 뿌리에 대하여	이기용 도서출판 열화당 대표,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7강	6.26	도전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조용갑 성악가, 베르디 국제 콩쿠르 1위 수상
8강	7.3	관용으로 꽃 피우는 문화	서경주 전주MBC 사장, 영국키디프 웨일즈대학 석사

협찬: 1회, 5월 24일(토) 강릉 선교장 - 허준 생가 - 경포대 2회, 6월 6일(금) 충북 재천 원림지 - 단양 팔경 - 고수동굴

※ 강의 일정 및 현장 답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  
빛고을 문화대학

주최/주관: 대동문화재단

**OPEN 30년 전통 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존**

**유·스퀘어점**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 10,900  
초등학생 ..... 7,000  
소년(미취학) ..... 4,000  
음료 .....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한타, 쥬스)

프리미엄 최상급 살코기  
· 풍부한 육즙  
· 부드러운 식감  
· 손질하기 쉽고 간편한 맛  
· 최첨단 기술로 탄생한 최곱 순서  
· 최위급 무국채 신선한 재료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랑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 아이엘리시아)